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빕니다.  
성령강림주일인 오늘, 이처럼 뜻 깊은 예배에 초대해주신 여러분의 너그러운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말문이 막히다

우리말에 ‘말문이 막힌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로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에서 혹은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되새김질해보니 여간 신통하지 않습니다. 말에 문이 달려 있다니요? 문이 열려야 비로소 말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다니요? 문 안에 갇힌 말은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아 온갖 속병을 일으키겠지요. 이런 문학적 상상력을 주조하고 공유하며 유통시켜온 민중의 지혜가 새삼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의 처지가 딱 그랬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는 제 삼십년 넷째 달 오일이었다.” 자신의 나이를 서른 살하고도 넷 달 오일이라고 소개합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이런 식으로 나이를 세는 사람은 다석 유명모 선생 외에 처음입니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다석 선생은 열여섯 살에 기독교에 입교한 뒤 52세 되던 날 크게 깨우침을 얻은 뒤로 날마다 ‘하루살이’처럼 사셨지요. 하루를 평생으로 여기며 매일매일 죽는 연습을 하는 것이 예수따르미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린도전서 15:31)는 바울의 고백과 일맥상통할 터입니다.

이제 겨우(?) 삼십대에 들어선 에스겔이 자신의 살아온 날을 이렇게 하루하루 정확히 꼽고 있던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 뒷부분에 친절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때에 내가 포로로 잡혀 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다.” ‘그발 강가’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땅으로, 바빌론 제국이 유대인 포로들을 집단수용한 일종의 난민촌을 가리킵니다. 바빌론 역사 기록에 의하면, 유대 포로들은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인 그발 강 운하공사에 투입되어 고강도 노동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 고단한 삶을 스케치하듯 보여주는 시가 바로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 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 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그러니까 에스겔은 주전 597년 유다 왕국이 바빌론 제국에게 멸망당하자 전쟁포로로 끌려와, 어느새 포로생활 5년차에 접어든 것입니다. 스물다섯 살에 망국을 경험한 청년의 심정이란 어떠할까요? 게다가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그 자신도 이제 막 ‘수습’ 제사장을 시작할 나이에 성전이 파괴되는 광경, 곧 자기 직장이 송두리째 불타는 장면을 목도해야 했으니

그 마음이 오죽했으려고요? 갈가리 찢긴 나라의 운명처럼 그의 인생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요즘 청년들의 자조적인 신조어가 저절로 떠오릅니다.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어). 그야말로 말문이 막히는 상황이지요. 그럼에도 그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허무주의와 냉소주의로부터 그를 구원한 것은 ‘하루살이’ 신앙이었습니다.

## 말문이 트이다

그렇게 5년째 되던 그 달 5일, 그가 살아온 날로 따지면 서른 살 너댓 달 오일이 되던 날,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열리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환상은 ‘판타지’(fantasy)가 아니라 ‘비전’(vision)입니다. 성서적 의미로 비전이란 하나님의 관점이 나에게 알려졌다, 곧 하나님이 보는 방식대로 세계와 역사와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비전의 정수입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그를 이끌어 마른 뼈들이 나뉘는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이런 곳은 자연 상태의 인간이 결코 선호할 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장면은 티브이 뉴스에서조차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의 법칙은 관성의 법칙을 거스릅니다. 보통 인간의 관성대로 하면 가급적 피하고 싶은 일도 성령이 하라 하시면 해야 합니다. 예수를 광야로 몰아낸 것도 성령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마가복음 1:12 참고) 우리는 인생길에서 어쩌다 광야에 내던져지면 “악마의 간계”(the devil's tricks, 에베소서 6:11)인 양 생각하기 쉽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게 마냥 ‘꽃길’만 있는 건 아닙니다. 꽃길만 걸으려고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기복신앙이기도 하고요.

성령이 에스겔을 죽음의 땅 한복판에 집어던졌습니다. 거기서 에스겔은 자신의 목회 대상을 푹푹히 보게 됩니다. “아주 말라 있는”(37:2) 뼈들입니다. 그것도 사방에 흩어져 아무런 연결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절망에 빠진 유대 난민들의 처지가 그렇다는 거지요. 하지만 어디 그들만 ‘마른 뼈’이겠습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 삶의 무게가 너무나 버거운 사람도 다 ‘마른 뼈’입니다. 마른 뼈끼리 있으면 조금만 부딪쳐도 아픕니다. “학교 잘 다녀왔니? 오늘 수업 어땠어?” 대수롭지 않게 한 말에도 대꾸 한 마디 없이 문을 쿵 닫고 들어간다면, 그 아이의 상태가 ‘마른 뼈’라는 뜻입니다. 그런 아이 뒤를 쫓으러 따라 들어가 “너 왜 그래? 무슨 버릇이야?” 야단치는 건 불난 데 기름 붓는 격이지요. 관계에 금이 가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오세영 시인은 <그릇 1>이라는 시에서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무엇이냐 깨진 것은/ 칼이 된다.”(A broken bowl becomes a knife blade. Anything broken becomes a knife blade.)고 썼습니다. 얼마나 예리한 통찰인지 모릅니다. 깨진 관계는 서로에게 칼이 되어 아주 작은 부딪힘에도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런 마른 뼈들에 대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들겠습니까? 고상한 철학이나 사상이나 윤리나 교양을 들먹인들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을 텐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는 말은 더 이상 그 자신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른 뼈들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 생기는 빨간 립스틱을 칠했다고, 명품가방을 선물 받았다고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고, 원하던 직장에 들어가고, 원하던 사람과 혼인했다고 해서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생기발랄함을 떨 수야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잠시뿐입니다. 절대 영원하지도, 참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는 다릅니

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생기, 글자 그대로 ‘신바람’(ruach)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게 작용해 영원히 살게 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 하루살이의 은총

이 에너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도망쳤던 제자들입니다. 스승의 죽음은 그들의 말문을 막히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스승의 약속은 그들을 다시 모이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요한복음 15:26-27) 이 약속에 의지해 예루살렘 한 귀퉁이 다락방에 웅크린 채 기도해 힘쓰던 어느 날,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른 뼈’와도 같던 그들 위로 성령의 신바람이 불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강림에 대한 묘사가 얼마나 시청각적으로 탁월합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2절)랍니다. 그리고는 마치 “불길이 솟아오를 때 헛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3절)답니다. ‘소리’와 ‘혀’, 모두 말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령이 충만하게 된 제자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현상 역시 ‘말’입니다. 말문이 막혔던 그들이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말이 아니라 ‘방언’을 합니다.

방언에서 신비주의를 거둬내면, 그 뜻은 그저 “한 언어에서 사용 지역 또는 사회 계층에 따라 분화된 말의 체계”가 됩니다. 같은 말로는 “사투리, 곧 표준어가 아닌 말”이 있지요. 이른바 기도원식 방언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 뒤로, 저는 ‘방언’을 이렇게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먼저는 1990년대에 ‘문화대통령’으로 군림한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 이데아>에 나오는 ‘사투리’입니다. “됐어, 됐어,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어. 그걸로 족해, 족해. 내 사투리로 내가 늘어놓을래.” “매일 아침 일곱 시 삼십분까지 전국 구백 만의 아이들을 조그만 교실로 몰아넣고 머릿속에 모두 똑같은 것만 집어넣고 있어.” 붕어빵틀에서 찍혀 나온 붕어빵들처럼 모두 똑같은 생각, 똑같은 바람, 똑같은 지향, 똑같은 욕망을 발설하는 게 끔찍이도 징그러웠나 봅니다. 그게 ‘표준어’라면 자기는 기꺼이 ‘사투리’로 말하겠답니다. 대학이 ‘스펙쌓기용 취업학교’로 전락한 우리 시대에 딱 어울리는 처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은 사물이 아니라는, 상품이 아니라는 단순한 진리가 ‘사투리’의 외피를 입어야 하는 현실이 참 답하지만 말입니다.

이 생각을 좀 더 밀고 나가면 방언이란 세상의 주류 가치관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진부한 표현으로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라고나 할까요? 물론 이때의 기독교는 세상과 한통속이 되어 그 어느 가르침보다 더 속물스럽게 구는 ‘개독교’여서는 안 되겠지요. 예수가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면 그대로 ‘예’하는 기독교, 예수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으면 그대로 ‘예’하는 기독교, 예수가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했으면 그대로 ‘아멘’하는 기독교, 그런 기독교여야 합니다.

그래서 방언의 성서적 의미는 결국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잘 팔리는 종교상품’으로 자리 잡은 ‘방언’은 같은 교회 교우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異常)한 말’이지만, 사도행전이 그리는 방언은 다른 나라 사람도 척척 알아듣는 ‘이상(理想)한 말’입니다. 성령은 접속시키고, 연결하고, 하나 되게 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강림주일을 맞아,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런 방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남들이 다들 그러니까 자기도 따라서 좇대 없이 말하지 말고,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말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법칙이 관성의 법칙을 이깁니다. 성령께서 우리 혀를 주관하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의 실존적인 경험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맺고자 합니다. 남편이 암에 걸린 뒤로, 그야말로 ‘하루살이’ 같은 매일을 보내노라니 사람들의 말에 무척이나 예민해졌습니다. 심방 오시는 분들 중에 ‘믿음 좋은’ 분이 계시면 더더욱 신경이 쓰입니다. 혹시 옅의 세 친구처럼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몸쓸 병에 걸렸나”느니 “회개하라”느니, 경건을 가장한 폭력적인 말들을 쏟아 놓을까봐 긴장하게 됩니다. 남편의 휴대폰으로 가끔 “기도하고 있다”는 문자가 날아오기도 하지만, 그런 문자는 솔직히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중보기도의 위력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아픈 사람에게 더 필요한 것은 열 번의 ‘디지털’ 문자보다도 한 번의 ‘아날로그’ 손잡음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오셔서 기도해주겠다고 하면, 직업병이 발동해 자꾸 분석하게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환자를 위한 기도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더군요. 첫째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식의 기도입니다. 주술적인 신앙의 전형적인 보기이지요. 둘째는 “의사로 하여금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치유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스타일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적인 신앙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나 여전히 초자연적인 힘의 개입을 회구한다는 점에서 과연 건강한 기독교 신앙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종류의 기도가 이른바 환자 심방에서 가장 많이 들려지는 말일 터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전혀 다르게 기도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아무개가 많이 아픕니다. 왜 이렇게 아파야 하는지, 이 고통의 끝은 과연 어디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저 덜 아팠으면 좋겠는데, 그마저도 헛된 바람일까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덜 아프고, 덜 외롭기 위해서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사람은 아픈데 나는 면제되어 다행이다, 그런 못된 생각을 하는 한, 저희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각자 살기도 바쁘다는 핑계로 이 사람의 아픔을 잊어버리는 한, 저희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암을 저주로 여기지 않고, 암과 동행하면서 생명의 깊은 신비를 함께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가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생명의 신비를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써주십시오. 당신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우리 모두가 생기 있는 나날을 함께 수놓을 수 있도록 지혜를 베풀어주십시오.”

‘나’를 거세한 채 하나님만 등장시키는 기도보다도 이렇게 ‘나/우리’가 들어간 기도가 오히려 들리더라고요.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가 살아날 길도 ‘종교적인’ 언설로 도배된 ‘자기들만의 은어’ 대신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는 일상의 언어로 생명을, 사랑을 이야기하는 데 있지 않을까요? 이 시대에 필요한 방언은 그것 아닐까요?

주님께서 생명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말라있던 영혼에 생기가 돌고, 절망의 땅에 희망의 꽃이 피는 것을 믿습니다. 이 기이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의 혀를 가지고 증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